

[기획] >> 3면
세계민속문화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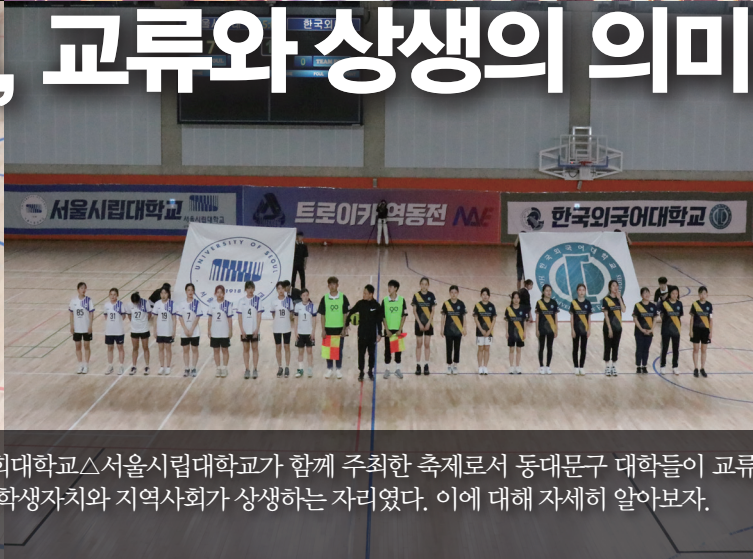
[기획] >> 4면
학생자치

[기획] >> 6,7면
삼동제

[사회문화] >> 8면
검찰개혁



삼동제, 교류와 상생의 의미를 넘어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삼동제가 열렸다. 삼동제는 △우리학교△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가 함께 주최한 축제로서 동대문구 대학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역사회와도 연대해 학생자치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6면에서 계속
글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조미경 기자 99migyoung@hufs.ac.kr

서울캠퍼스 의제 문화제 열려

지난달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우리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의제 문화제가 열렸다. 의제 문화제는 학내 현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이며, △메인무대△과기 퍼레이드△미니 버스△포토존△일반 부스 및 의제 부스△버스킹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엔 △총장 선출권△징계위원회 학생 참여△안전 협의회△등록금 심의 위원회에 대한 부스들이 설치됐다. 과기 퍼레이드는 모든 단과대 및 독립학부가 모두 각자의 깃발을 들고 모여 교내 전체를 순회하는 행사다. 또한 이번 의제 문화제엔 베리어프리존이 운영됐다. 베리어프리존은 무대 공연때 관람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선범(서양어·포르투갈어 17)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제 문화제에 대해서 “이번 의제 문화제의 기조는 외침(외대 새로고침)이었다”며 “이는 하반기 전체학생총회 기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제 문화제의 의미는 1만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우분들께 학내 현안을 축제의 형식으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총학생회의 외침 그리고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담은 학생사회의 외침을 통한 변화의 물결을 만든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경영대학 경영학부 40주년 행사 열려



▲경영대학 경영학부 40주년 행사가 진행 중인 사이버관 1층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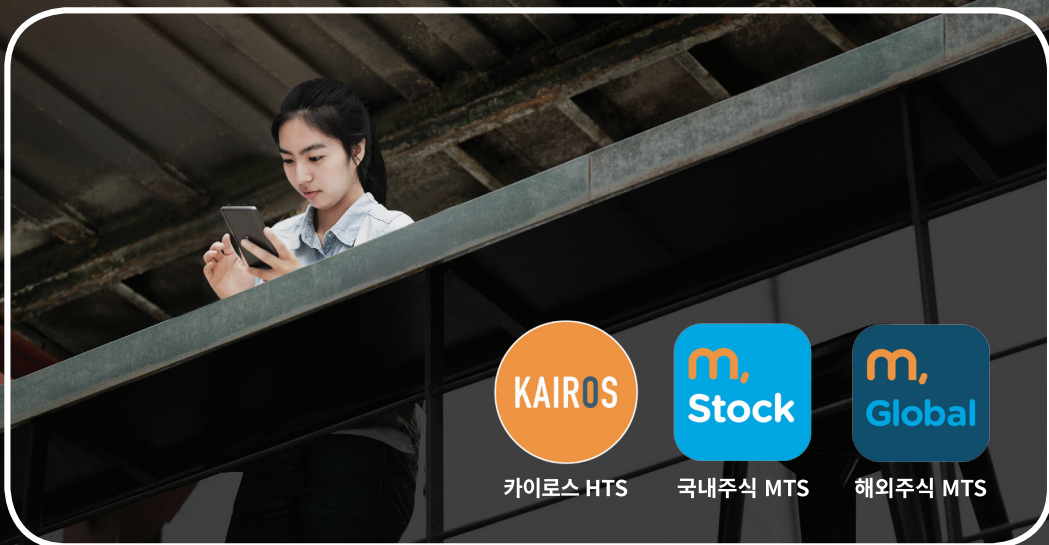
지난달 27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1층 대강당에서 우리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4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엔 △40주년 기념 컨퍼런스△저녁만찬 및 친교의 시간△40주년 기념행사 및 외경인의 밤이 포함됐다.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 40주년 기념행사 및 외경인의 밤은 △개회선언 △환영사△축사 및 내·외빈 소개△감사장 및 공로상 수여△레크리에이션 및 경품행사△우리학교 경영대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재우 경영대학 이재우 동문회장△정종기 경영대학원 동문회장이 참석했으며 하영명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공로상을, △심장식△반채운△박찬엽△강신화△이재우 씨가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우리학교 경영대학은 1979년에 출범해 경영학과에서 경영학부로 승격됐으며, 후에 경영대학으로 독립했다. 또한 무역대학원으로 출범했던 경영대학원과 통합해 HUFS Business School로의 교육기관 운영체제를 세웠다. 지난해엔 AACSB 국제경영교육인증 받은 바 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3863호 (2019.09.24 ~ 2020.09.23)



카이로스 HTS



국내주식 MTS



해외주식 MTS

한번 다운로드, 평생 글로벌 투자파트너- 미래에셋대우

좋은 파트너 선택이 평생투자를 좌우합니다.
앞선 파트너와 함께 하세요

-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 글로벌 리서치센터
-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총 33개국 거래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국가간 환전 없이 당일 사고파는 통합증거금 서비스

*일부 통화환정 / 실시간 결제환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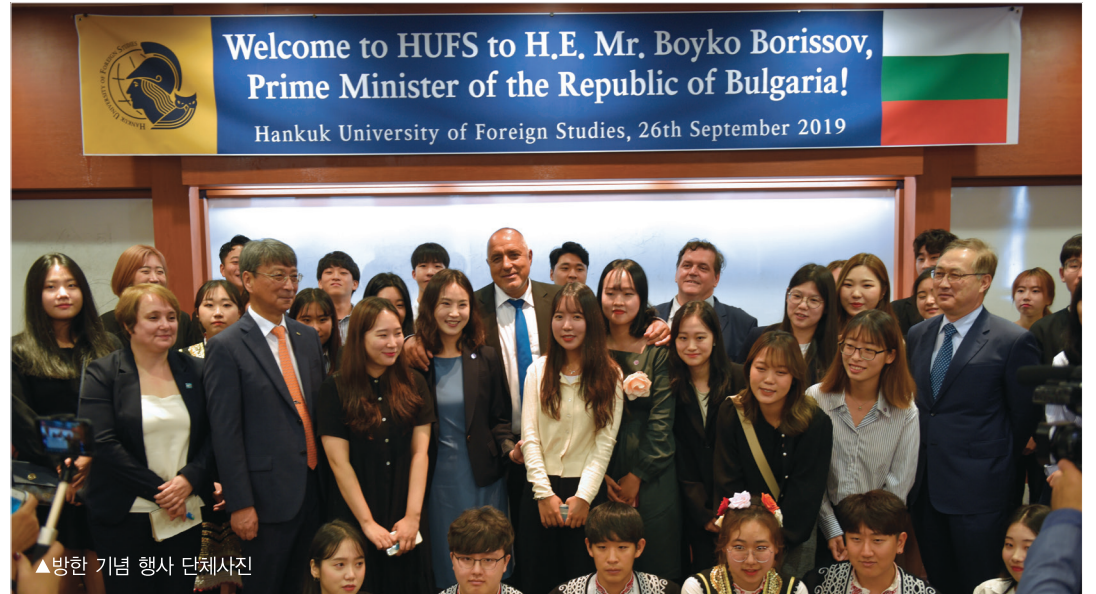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6800]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장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신규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 0.14%, 오프라인 0.49% 신규 다이렉트 계좌 온라인 0.014%, 오프라인 0.4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해외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 우리학교 방문해



▲우리학교를 방문한 보리소프 총리



▲방한 기념 행사 단체사진



▲보리소프 총리(좌)와 조기성 글렘 부총장(우)



▲도서 기증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



▲방한 기념 행사 전 접견 자리

지난달 26일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를 방문했으며 보리소프 총리의 방한 기념 행사가 서울캠퍼스 법학관에서 열렸다. 방한 기념 환영 행사 전 접견 자리에 불가리아 측에선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총리△크라시미르 카라카차노프(Krasimir Karakachanov)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블라디슬라프 고라노프(Vladislav Goranov) 재정부 장관△로센 엘리아즈코프(Rossen Jeliazkov) 교통 및 통신, IT 장관△에밀 카라니콜로프(Emil Karanikolov) 경제부 장관△페트코 드라가노프(Petko Draganov) 주한불가리아 대사△카티나 노브코바이(Katina Novkova) 주한불가리아 대사관 영사가, 우리학교 측에선 △조기성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부총장△김응운 국제지역대학 학장△김원명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채유정 그리스·불가리아학과 교수△김명진 국제학부 겸임교수(전 불가리아 대사)가 참석했다.

환영 행사에선 채유정 교수와 랑겔로프 그리스·불가리아학과 교수가 진행을, 루드밀라 그리스·불가리아학과 교수가 통역을 맡았다. 그

리스·불가리아학과 학생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불가리아의 전통빵인 바니짜를 보리소프 총리에게 전달했다. 또한 학과를 소개한 후 △합창△전통 춤△불가리아 노래 모야스트라나, 모야불가리아(моя страна, моя България) 공연을 하며 보리소프 총리 일행을 환영했다. 또한 보리소프 총리는 그리스·불가리아학과에 △이동문학작품△전래동화△이반바조프 작품을 포함한 약 300권의 불가리아어전공 도서를 기증했으며 이에 학과에선 총리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이 행사에서 보리소프 총리는 “양국의 우호적 관계 강화와 불가리아 내 한국 공장의 유치를 바란다”며 “우리학교 그리스·불가리아학과 학생들의 △해외연수 기회 제공△방문기회 확대△인턴십 프로그램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채유정 교수는 “보리소프 총리가 동양의 먼 나라에서 불가리아의 전통과 자부심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것에 대해 “이런 경험이 학생들에게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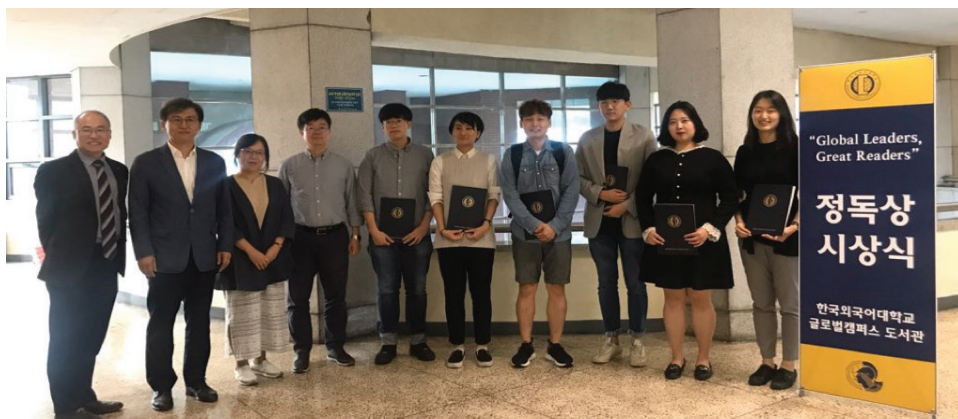
에 대한 강한 동기로 작용해 그리스·불가리아학과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 전통 노래를 부른 광지역(국제지역·그블 19) 씨는 “가사를 외우는 것부터 발음 문제까지 정말 쉽지 않았지만 옆에서 도와 주신 교수님과 응원해준 동기들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노래의 끝에 기립박수까지 쳐주시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보리소프 총리는 다음 해 우리나라와 불가리아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방문했다. 10년 간 세 차례 총리직을 역임하고 있는 보리소프 총리는 한·불가리아 수교 이후 역대 불가리아 총리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정독상 시상 진행해



▲글로벌캠퍼스 정독상 수상자들의 사진

이번 달 1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도서관장실에서 정독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해 정독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손우현(통번역·독통 14) 씨로 선정됐다. 이어 안성혁(인문·철학 19) 씨와 염한결(인문·철학 15) 씨가 우수상을, △김민욱(인문·철학 13)△김예래(자연과학·전자물리 14)△김홍민(인문·철학 16)△전하연(국제·브라질 15) 씨가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은 정독상심사위원회의 1차 및 2차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편 글렘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 이용 활성

화와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매학기 다독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 달 8일 도서관 도서관장실에서 1학기 다독상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다독상 수상자는 글렘 소속 학부생이 대상이며, 이번 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최다 대출자 중에서 선정된다. 다독상 수상자는 총 7명(우수상 1명과 장려상 6명)이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글로벌캠퍼스 FBS 가요제 행사 개최돼



▲가요제 행사 수상자들의 사진

이번 달 1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세 시간 동안 제 33회 FBS가요제가 개최됐다. ‘라떼는 말이야’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엔 △가요제△댄스 신곡식△쉬어가는 코너△관객 투표 등의 순서가 포함됐다. 가요제의 제목 ‘라떼는 말이야’는 참가자들의 옛날 시절 노래를 들려주고 참가자들의 사연을 소개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

다. 또한 이번 가요제의 주제는 ‘그 시절, 그 때, 그 노래’로 행사 참가곡은 2011년도 전의 노래로 한정됐다. 노래가 한정됨에 따라 지원분야가 랩과 퍼포먼스 등으로 넓혀졌다.

이번 가요제에서 ‘추억은 사랑을 닮아’를 부른 백재현(자연·환경 15)씨가 1위로 선정됐다. 이어 ‘나는 나비’를 부른 최재훈(공과·산업경영 18)씨가 2위를,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부른 김용욱(국제지역·러시아어 16) 씨 외 3명이 3위를 차지했다. 수상자들은 각각 상금 △50만원△30만원△2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선 사전 이벤트에 참여한 관객들에게 에어팟 2세대를 주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제29회 세계민속문화축전, 세계에 물들다

지난달 24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선 세계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이 개최됐다. 1971년 서울캠퍼스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세민전은 현재 글캠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이 축제에선 세

계여러 국가의 문화공연이 선보여진다. 이번 세민전에는 총 10개의 학회가 참가해 전통춤 및 노래 공연을 했다. 이에 세민전과 학생들의 소감에 대해 알아봤다.

◆세계민속문화축전, 물들다

세민전은 다양한 문화공연 및 행사가 진행되는 글캠의 대표적 축제이다. 학회원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무용과 노래를 선보이는 만큼 세민전의 목표는 문화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는데에 있다. 세민전 공연자는 모두 우리학교 학생들이며 학생들은 해당 국가의 △언어△문화△전통무용을 연구했다. 29주년을 맞은 이번 해 세민전의 테마는 ‘물들다’였다. 윤소영(동유럽 · 체코어 18) 세민전 준비위원장(이하 윤 위원장)은 이번 테마에 대해 “여러나라의 문화에 다함께 물들어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민전엔 △플라멩코△마주르카△탐비다△굴데르△폴로△로스호베네스△탄첸△갈리나△트웜보△폴카△산다르스나빌레라 총 10개의 학회가 참가했다.

한편 세민전에 참가한 학회는 5월에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선정됐다. 공연할 학회를 선정하는 기준은 △민속성적합성△공연준비성△내용구현도△무대몰입도이다. 민속성적합성은 ‘공연이 의미하는 바가 각국의 민속성에 적합한가’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를 위해 각 학회에선 학과장이나 외국인 교수의 직인이 찍혀있는 민속성 증명서를 제출한다. 민속성 증명서에 공연에서 표현되는 △내용△춤△노래에 대한 역사가 적혀있다. 세민전 준비위원회에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한 사실판단을 한다. 공연준비성은 ‘완성도 있는 공연을 선보였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오디션에 예술교수 조빙후 심사를 진행해 이 항목을 채점한다. 내용구현도는 ‘민속성에 입각해 무대를 훌륭히 구현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무대 공연을 보고 △민속적 상황△공연구성△의상△분장의 조화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무대몰입도 항목은 이번 세민전에 처음으로 추가됐다. 이는 ‘모든 학회원이 무대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이다. 관객들이 학회원 모두가 무대에 집중하는 것을 느끼면 공연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가됐다.

세민전에서 공연한 체코 · 슬로바키아어학과 소속 학회 ‘폴카’의 학회원 김한비(동유럽 · 체코어 19) 씨는 “입학 전에 이 학회가 세민전에서 공연한 장면을 봤다”며 “세민전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체코 전통 춤을 배



▲우크라이나어과 갈리나



▲아프리카학부 트웜보

◆세민전, 앞으로의 방향은?

성공리에 막을 내린 세민전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민전에서 공연을 선보인 임지현 씨는 “지난해엔 야외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번 해에는 실내에서 행사가 진행됐다”며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연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다른 학회의 무대를 볼 수 없어 많이 아쉬웠으며 라이브방송이 진행된 것지만 화면과 무대의 거리가 멀고 화면의 화질이 좋지 않아 보기에 불편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건우(통번역 · 스페인어 19) 씨는 “세민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좀 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세민전을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민전에 참가하는 학회의 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준 씨는 “청중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다. 세민전에 참여한 학회원들만 무대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공연이 짧은 시간에 진행돼 여유시간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 큰 여운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청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며 “공연을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즐기러 온 청중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세민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 같다”고 개선방향을 말했다. 김현진 씨는 “무대공연 외에도 즐길거리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나라의 민속문화를 보여주는 공연인 만큼 학회와 각 나라의 문화를 간략하게 알려주는 부스가 운영되면 행사가 더 풍성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을 기획한 윤 위원장은 “지난해에 제기된 불만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의 공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학교 예산 때문에 어려웠다”며 “이번엔 학교에서 공연하는 만큼 홍보에 힘을 쏟았다”고 전했다. 또한 “덕분에 한양대학교 폴란드 교환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의 외국인들도 공연을 많이 보러왔다”고 밝혔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 로스호베네스



▲체코 · 슬로바키아어과 폴카

울 수 있었고 나아가 공연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민전 공연을 위해 6개월 이상 연습했기에 끝난다는 게 아쉽지만 뿌듯하다”며 공연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독일어통번역학과 소속 학회 ‘탄첸’의 학회원 임지현(통번역 · 독일어 19) 씨는 “공부만 하기엔 대학 생활이 지루할 것 같아 학회를 하게 됐다”며 “힘들었던 일도 있었지만 활동적인 춤을 추는게 정말 즐거웠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공연을 하면서 독일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춤을 추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세민전 관계자로 참여한 김현진(통번역 · 중국어 19) 씨는 “관계자로 활동하며 세민전 무대를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공연이 끝난 후 무대와 공연장소를 정리하며 몸은 힘들었지만 세민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준(통번역 · 스페인어 19) 씨는 “다른 곳에선 쉽게 접할 수 없는 우리학교만의 특색있는 공연이라 더 의미있고 인상깊었다”며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돼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고 세민전 공연을 관람한 소감을 밝혔다.



▲세민전을 진행하는 사회자



▲한국학과 나빌레라

학생자치 이대로 관참은가

지난달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장단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경영대학(이하 경영대) 학생회장이 사퇴하며 교내 학생자치기구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현재 동연과 경영대 학생회

는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전환된 상태다. 동연과 경영대 학생회 의 사건 발생 개요와 우리학교 학생자치 위기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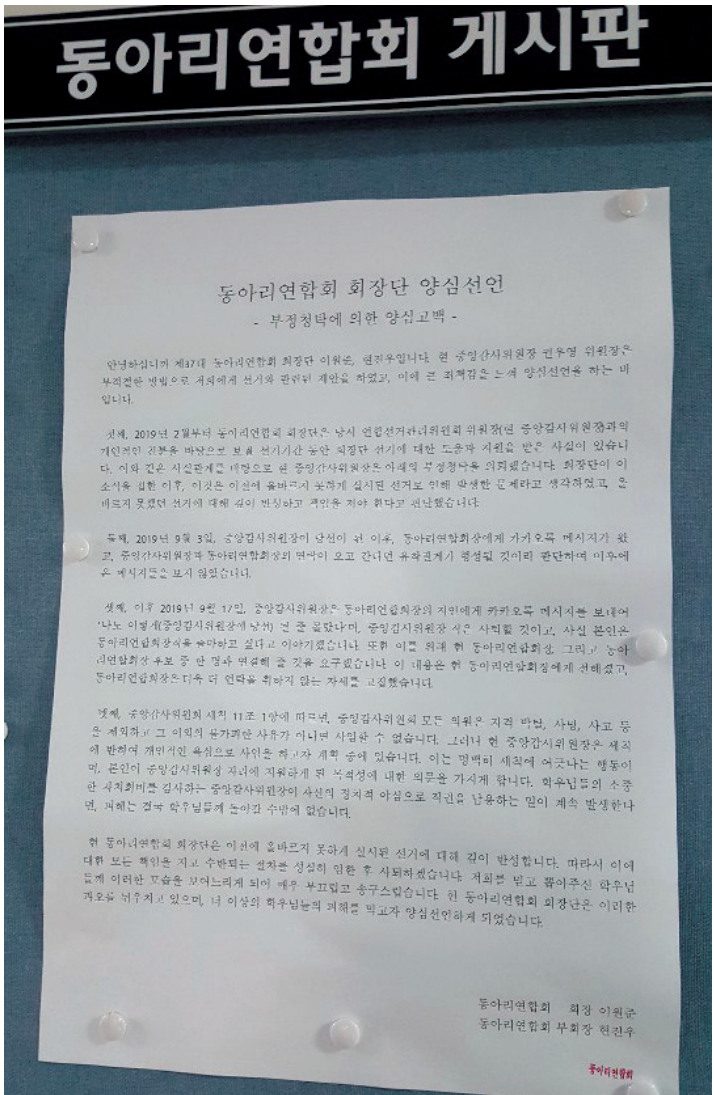
◆글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사퇴

이번 달 2일 글캠 제37대 동연 회장단(이하 회장단)의 징계가 확정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3일 회장단의 양심선언 대자보로부터 시작됐다. 이를 통해 이원준 제37대 동연 회장(이하 이 동연장)과 현진우 제37대 동연 부회장(이하 현 부동연장)은 권운영 전 중앙감사위원장(권 중앙감사위원장)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후 부적절했던 과거에 대해 양심고백을 하고자 함을 밝혔다. 대자보에 따르면 지난 2월 회장단과 당시 연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 중앙감사위원장은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동연 회장단 선거에 도움을 줬다. 회장단은 이 사실을 밝히며 당시 시작됐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최근 권 중앙감사위원장이 자신들에게 동연 회장직 출마를 위한 도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도 과거의 부적절했던 선거를 반성하고 이를 책임지며 사퇴할 것으로 밝혔다. 이어 지난달 24일 권 중앙감사위원장 역시 회장단의 사직과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 이를 통해 회장단의 △부정선거△다음 해 총학생회 출마를 위한 사퇴 준비 및 그로 인한 동연 업무 소홀△동아리지원처 간부들에게 했던 인격 모독적 발언과 불통 행정 등을 지적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이 동연장과 현 부동연장은 동연 간부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문을 보내고 연합선거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한 같은 날 긴급 개최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권 중앙감사위원장과 이 동연장은 모두 징계를 통해 정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들은 영구적으로 △학생사회 행사 참여△선거권·피선거권△학생회·자치기구 활동△학생자치장학금 수령 등의 권리 행사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달 1일에 열린 연합운영위원회와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선 회장단 탄핵소추안이 재적인원의 절반을 넘어 가결됐다. 이 의결에 따라 회장단은 탄핵 소추라는 징계를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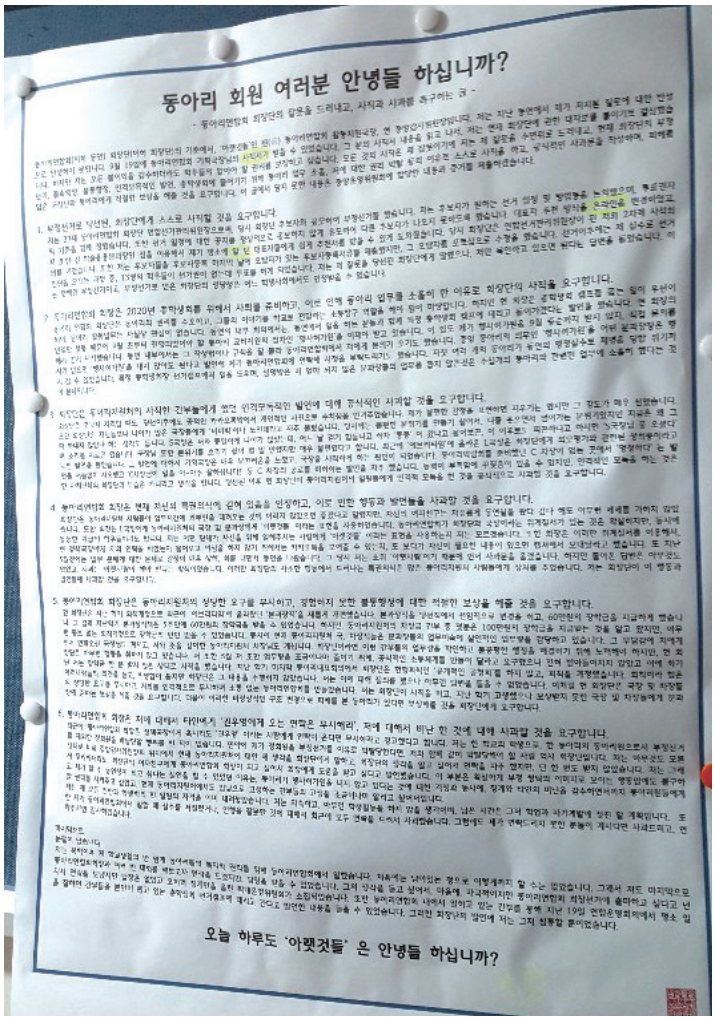
이번 사태에 대해 김모 동연 소속 중앙동아리 회장은 “학내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유린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회장단과 권 중앙감사위원장의 대자보를 보면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기보단 서로를 지적하는데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회장단이 부정선거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느꼈다”며 이는 “부당하게 행사된 권한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러한 일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학의 비슷한 사례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도 봤는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얘기했다. 이어 “동연 내부 자체의 징계 규정이 미비한 것 같다”며 보안을 향한 바람을 드러냈다. 또한 “동연과 같은 학생자치기구에 출마하기로 했다면 그 자리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잘 인지하고 충분히 생각한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설캠 경영대학 학생회장 사퇴

지난달 18일, 경영대 정기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은 경영대 학생회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20일에 경영대 학칙에 따라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와 임시 경영대 학생대표자회의 소집 요구서를 이찬영 제11대 경영대 학생회장(이하 이 학생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의 연서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 발의 배경은 △학생회칙 위반△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서의 직무 유기△중앙운영위원회 의결권 박탈 등이다. 이를 후인 22일, 이 학생회장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이를 통해 세 가지 논란에 대해 사과를 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중앙운영위원회 무단 불참에 관한 것이었다. 그로 인한 자격 박탈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음을 밝혔다. 두 번째론 경영대 하반기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데에 학생회칙 제20조 1항인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소집에 있어 의장은 최소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를 지키지 못했음을 반성했다. 마지막으로 사과문 게재가 늦었다는 논란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이 학생회장은 회장직을 자진하여 사퇴했다. 이로 인해 집행위원 전원도 자동으로 사퇴 처리됐으며 이어 경영대 비대위 설립위



▲동연 회장단 대자보



▲권 중앙감사위원장 대자보

원회가 구성됐음이 공고됐다. 다음 날인 26일, 경영대 비대위 설립위원회는 간선투표를 통해 비대위 위원장이 선출됐음을 알렸고 이날부터 경영대 학생회는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고흥석(경영·경영 15) 씨는 “이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박탈당한 사실은 학생회장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라며 “이로 인해 경영대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생대표자회의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학생회장이 자진하여 사퇴한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중앙운영위원회 무단불참 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우리학교 학생자치 문제

지난 5월 우리학교 글캠 독일어통번역학과에서도 학생회장의 문제를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과 회장이란 직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독단적인 과 운영비 사용△과방 감시카메라 설치△도덕성 결여 등을 이유로 학생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총학생회 출마 후보팀인 하모니와 유착 관계에 있어 하모니의 편의를 봐줬다는 논란이 일어 사퇴한 바 있다.

지난 1월 설캠에선 총학생회장단 사퇴 의결 건이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올랐다. △능률격려금 심의 불이행△박철 전 총장 및 S-K교수 사건 대응 미숙△성희롱 및 언어폭력 등에 관한 문제들이 그 이유였다. 지난해엔 영어대학 학생회장과 EICC 학생회장이 사퇴했다. 각각 성희롱과 성추행 논란으로 인한 결과였다. 또한 2017년엔 남한결 전 부부상대책위원장(이하 남 부비대위장)의 교비 횡령 사건과 이를 전 서양여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이 서대 비대위장)의 교비 사용 및 관리 과정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남 부비대위장은 학생회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스포츠 도박에 사용해 징계를 받았다. 이 서대 비대위장은 교비 450만원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양지선(국제지역·아프리카 17) 씨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자리가 비대위로 대체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며 “학생자치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 염려된다”고 얘기했다. 따라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회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상적인 학생자치기구라면 평소 행실로 신뢰감을 쌓아 학교 측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때 믿음직한 인상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시흥주(인문·철학 18) 씨는 “돈과 개인의 욕망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이 학생자치를 훼손해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학생들의 대표 자격을 얻기 위해선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진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내영(국제지역·인도 15) 씨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학생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공약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치기구였으면 좋겠다”며 “이상적인 자치는 행동과 결과물이 투명하게 보이는 적극적인 자치인 것 같다”고 얘기했다. 매해 우리학교 학생자치기구에 관한 논란이 불거져 왔고 탄핵과 사퇴가 반복됐다. 이에 대해 앞으로 학생사회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Тунхаг бичиг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외대학보 공동기획



번역
김기선
우리학교 몽골어과 교수

감수
Lkh. Dolgormaa
우리학교 몽골어과
특임강의 교수

Бид энэхүү бичгээр манай Чусон улс тусгаар улс ба Чусон хүн эзэн эрхэт иргэн болохыг тунхаглаж байна. Ингэснээр дэлхийн түмэн улсад мэдэгдэж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эрх тэгш нь ёс болохыг илэрхийлэх ба, үүгээр үр хойч түмэн үедээ мэдэгдэн үндэстэн тусгаар орших зүй эрхийг мөнхөд эдлэх болно. Хагас түмэн жилийн түүхийнхээ сүр хүчинд тулгуурлан, хорин сая ардын чин итгэлийг нэгтгэн үүнийг бүхнээ түгээн тунхаглаж, өнө мөнхөд тууштай үндэстний эрх чөлөө, мандан бадралын төлөө үүнийг санаачилж,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сайн санааны үзэл санаанаас урган гарсан дэлхийг шинэчлэх аугаа боломж, цагийн тохиолд нийцүүлж хамтдаа ургашлахын төлөө уг асуудлыг дэвшүүлэх ба энэ нь тэнгэрийн зарлиг, цагийн аяс бөгөөд бүх хүн төрөлхтөн эв хамт орших эрхээ эдлэх зүй хэрэг учир тэнгэрийн дор юу ч бай үүнийг даран няцааж чадахгүй болно. Хуучин цагийн үлдэгдэл болсон империализм, авторитаризмэд хилсдэн, үе дамжсан хэдэн мянган жилийн түүхнээ анх удаа өөр үндэстний дарлалд зовон шаналах болсноос хойш хэдийнэ арван жил улирсан ч энэ хугацаанд бидний амьд орших эрхээ булаалгасан нь юутай их, ухамсар хөгжилд саад болсон нь юутай их, үндэстний эрхэм оршихуй, алдар хүндэд хохиrol үзүүлсэн нь юутай их, машинд төгс өвөрмөц шинэлэг, өөрийн онцлогоор дэлхийн соёлын урсгалд хувиа нэмэрлэн, хүртээх боломжоо алдсан нь юутай их билээ. Аяа урьдын гомдол бачуурлаас гэтлэн ангижрая гэвээс, өнөө тулгарсан бэрхшээлийг туулан гарья гэвээс, хэлмэгдэн дарагдаж, арилан одсон үндэстний ариун сэтгэл, улсын алдар хүнд, ёс журмыг сэргээн засая гэвээс, хүн бүрийн хүмүүжил төлөвийг хөгжүүлбэ гэвээс, өрөвдөм бяцхан үр хүүхдүүддээ ичгүүрт энэ байдлыг үлдээж хоцроохгүй гэвэл, үеийн үед үр хойчдоо өнө мөнхөд баяр хөөр, аз жаргалыг өвлүүлэн үлдээе гэвэл хамгийн том бөгөөд яаралтай үйл бол үндэсний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ыг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явдал тул хорин сая иргэн тус бүрнээ цээжиндээ хутгаа өвөрлөсөн байна.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нийтлэг ёс, цаг үеийн шударга ёс нь армийн болон хүмүүнлэгийн гэх хоёр зэвсгээр дэмжиж байгаа тул, бид тэмцэн тулалдахад ямар ч хүчтнийг дарж, ухран зогсовч юуг хийж бүтээж чадахгүй байх билээ. Канхвгийн гэрээнээс хойш үеийн үед бат сахиж ирсэн тангарагаас буцсан хэмээн Япон урвасанг шийтгэх гэсэн хэрэг биш. Тэдний багш нар хичээлийн танхимд, улс

төрчид бодит амьдрал дээр бидний өвөг дээдсийн үе улиран өвлүүлж ирсэн ахуй амьжиргааг колонийн зүйл гэж хэмээж, соёлт үндэстэн биднийг харанхуй бүдүүлгээр харан зээрхийлэгчийн хувьд баясан шунаж байна. Өнө урт түүхтэй манай нийгмийн үндэс, үндэстний ариун сэтгэлийг дорд үзлээ гээд Японыг бусармаг гэж буруутгах гэсэнгүй. Өөрсдийгөө зэмлэн, урамшуулах ч сөхөөгүй бид бусдыг үзэн ядах завсар байхгүй. Өнөөдөртөө дутуу дулимаггүй бэлтгэхэд завгүй байгаа бид ужиг өнгөрснийг шүүж, буруут ялгах завдал үгүй. Өнөөдөр бидний хийх зүйл бол өөрийгөө өргөж босгох л ажил байна, өрөөл бусдыг унагаан сүйтгэх биш юм. Чанд хатуу ариун сэтгэлийн тангараг болгож өөрийн шинэ хувь заяаг бүтээх л ёстой болохоос ужиг хорсол, зуурдын сэтгэлээр бусдад атаархан гадуурхах нь хэрхэвч бидний хийх зүйл биш. Хуучи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хуучин хүчиндээ хүлээстэй Японы улс төрчидийн хоосон сүрэнд золиослогдсон хэвийн бус бөгөөд зохисгүй байдалд автан сүйрсэн байдлыг залруулан засч хэвийн бөгөөд зохистой, зөв бөгөөд үнэн үндсэн суурь болох замруу нь буцаан оруулах гэж байна. Угаас үндэстний шаардлагаас үүдэн гарч хоёр улсын нийлүүлсэн явдал биш байсан учир тэрхүү үр дүн нь эцэстээ цаг аргацаасан дарангуйлал, ялгарлан гадуурхсан тэгш бус байдал, хуурмаг гоёчилсон статистик тооны доор харилцан өөр ойлголттой хоёр ард түмний дунд хэзээ ч хамтдаа нэгдэх боломжгүй үзэн ядалтын шархыг улмыг бүр төнхөн байгаа өнөөгийн нөхцөлөө тунгаан харагтун. Ирмүүн гэгээн эрч хүчээр ужиг өвч засан залруулж, бодитой ойлголцол, нигүүсэлд суурилсан найрсаг, шинэлэг хэлбэрийг эрж олох нь харилцан хорсол гомдолоо дарж, эвийг эрхэмлэх дөт зам гэдгийг гарцаагүй ухамсарлаж буй бизээ. Тэрхүү уур хилэн, хорсол гомдол хурсан хорин сая ардыг гагцхүү хүчээр далайлган барих нь дорнын энэ нутагт энхийг тогтоож чадахгүйгээр барахгүй үүний улмаас дорно дахины амар амгалан бөгөөд аюул эгзэг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гол хүч болох 4 тэрбум Хятад хүмүүс Японоос айж цэрвэх нь улам ихсэх бөгөөд түүний үр дүнд дорно дахин бүгдээрээ цутгаа сүйрэх гүнийг хувь заяаг дуудах нь гарцаагүй тул өнөөдөр бидний Чусоны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 нь Чусон хүн амьд явах зохист эрхээ олж, хөгжин цэцэглүүлэхийн зэрэгцээ Японыг буруу замаасаа гарч дорно дахиныг дэмжин тэтгэгчийн хувьд хүндтэй хариуцлагаа саадгүй явуулахад оршино. Хятад хүний хувьд мартагхын аргагүй түгшүүр айдсаас нь ангижруулах бөгөөд мөн дорно дахины энх тайван нь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 бүхий дэлхийн энх тайван,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сайн сайханд зайлшгүй чухал шаг болох юм. Энэ хэрхэвч үл ялиг сэтгэлийн хөөрөл төдий асуудал байх билээ. Аяа шинэ дэлхий нүдний өмнө нээгдэж байна. Хүч давамгайлсан цаг харьж, хамтдаа халалцах цаг үе иржээ. Бүтэн зууны турш хурцлан ирлэж, урт хугацаанд өсгөн бойжуулсан хүмүүнлэг ухамсар өнөө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түүхнээ шинэ иргэншлийн гэгээг татуулж эхлэлээ. Шинэ хавар ертөнцөд ирж амьтай бүхнийг сэрэн амилахыг урин байна. Хахир хүйтэн хүний амьсгалыг боомилж хөдөлж чадахааргүй хөшөөдөг байсан нь улирсан үеийн шинэ байсан бол урьхан хонгор хаврын салхи, урин дулаан нарны гэрэлд эрч хүч оргилж, судас лүтших нь энэ цагийн шинэ тул хорвоо ертөнцөд буцан ирсэн хувь тохиолтой золгон учирч, дэлхий дахины өөрчлөлтийн давалгаанд орсон бид хойш суух шалтгаангүй бөгөөд эргэлзэх зүйл үгүй билээ. Бидэнд төрөлхөөс заяагдсан эрх чөлөөгөө бүрэн хамгаалж эрч хүч дүүрэн амьд бодгалийн хувьд аз жаргалаа бүрэн эдлэх бөгөөд өөрсдийн баялаг бүтээлч чанараа дайчлан хаврын урь дүүрэн энэ дэлхий дээр ариун гэгээлэг үндэстний соёлыг бүтээнэ. Бид сэргэн босох болно. Хүнлэг сэтгэл бидэнтэй хамт байж, үнэн бидэнтэй хамт урагшлах болно. Эр эм, хөгшин залуугүй бүгд түнэр, бүтчим урьдын байрнаас үтэр холдож орчлон ертөнцөд баяр баясгалантайгаар сэргэн мандах болно. Өвөг дээдсийн минь сүнс үл үзэгдэх ч биднийг ивээж, бүх дэлхийн эрч хүч биднийг гаднаас хамгаалан байх тул эхлүүлнэ гэдэг нь амжилт билээ. Гагцхүү, өмнөх дуурайх гэрлийг чиглэн урам зоригтойгоор урагшлах л үлдэв:

3 зүйл тангараг

Нэгэн зүйл, Өнөө бидний энэхүү агуу үйл нь үнэн шударга, хүмүүнлэг ёс ба амьд явах эрх, эрхэм завшааны төлөөх үндэстний шаардлага тул гагцхүү эрх чөлөөний ухамсараар хандана, туйлширсан сэтгэл хөдлөлд үл автан зөв журмыг бүү алдагтун. Нэгэн зүйл, Эцсийн ганц хүн хуртэл, эцсийн нэг мөчийг хүртэл үндэстний зохист үзэл санааг сэтгэл дүүрэн илэрхийлэгтүн Нэгэн зүйл, Бүх үйлдэлд дэг журмыг эрхэмлэн дээдлэж, өөрсдийн үзэл бодол, хандлагаа хаана ч зоригтой, зохистойгоор илэрхийлэгтүн.

Чус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ы 4252 жил тохиосон оны 3 сарын нэгний өдөр. Чусон үндэстний төлөөлөл:

Сунь Бёнхий, Кил Соньжү, И Пилсү, Пэг Юнсон, Ким Ванпо
Ким Бёнжү, Ким ЧанЖүнь, Квон Дунжинь, Квонь Бёндог, На Юнхвань
На Инхёп, Ян Сүнбёг, Ян Ханьмүг, Ю Ёдэ, И Габсон
И Мёнрюн, И Сынхүнь, И Жунхүнь, И Жунил, Им Ехвань
Баг Жүньсун, Баг Хиду, Баг Дунвань, Шинь Хуншиг, Шинь Согү
У Сэчан, У Хаён, Жон чүньсү, Чой Сонму, Чой Ринь
Хань Юнүнь, Хун Бёнги, Хун Гижу

1958년부터 국내 최초의 대학 외국어 학술 단체로 출범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이후 HIMUN, 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의 주도로 개최된 ‘모의UN총회’는 대학생 개인이 각국의 대표단으로서 국가의 입장을 표명하며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복잡한 국제적 관심사를 처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외대의 대표적인 학생 활동 중 하나다.

본 사진 기록물은 1958년 12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진명여고 강당에서 ‘UN군축(The Armament Reduction of

UN’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모의UN총회 대회를 마치고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모의UN총회 관련 기록물에 따르면 제1회 대회가 당시 UN의 공용어인 △영어△프랑스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으로 진행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각 나라를 대변하는 학생 대표들이 해당 국기 명패를 왼쪽 가슴에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안호삼 우리학교 초대 학장과 박솔음 우리학교 제2대 학장을 비롯한 다양한 교내 인사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또한 왼쪽 하단에 위치한 우리학교의 이전 교명(Foreign Language College of Korea, F.L.C.K)이 적힌 교기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한편 우리학교의 영문 교명은 1962년 F.L.C.k에서 지금의 Hufs로 변경됐다. 이후 모의UN총회는 1961년부터 우리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 대학 학생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대외적인 행사로 발돋움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외국어는 물론 해당 국가의 △역사△문화△정치△사회적 현안 등을 두루 학습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민속문화축전과 함께 우리학교의 대표적인 학생 활동으로 남아있다.

베트남의 1000년을 간직한 전통도시이자 수도, 하노이

우리와 가깝고도 먼 나라,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세계 인구 15위의 거대 국가다. 베트남 주민은 90%이상이 베트남인, 그리고 그 외 중국인과 53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1000년 전부터 베트남의 중심도시였으며 현재는 베트남의 수도로 자리매김한 하노이를 우리학교 학생인 풍투차(사회 · 미디어 18) 씨를 통해 알아봤다.



▲베트남 서호(사진출처:Google)

하노이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꼽자면 첫 번째로, ‘36거리’를 들 수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베트남의 봉건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건물과 가옥의 모습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베트남 전통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곳의 이름은 옛날에 36개의 상인 조직이 조직별로 구역을 정해 상품을 팔았던 데서 유래했어요. 이름처럼 총 36개의 거리로 나뉘는데 파는 물건에 따라 거리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곳은 거리가 매우 좁아 차가 들어설 수 없는 곳도 많고 비슷하게 생긴 골목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어 사람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통해 이동해요.

두 번째로, 서호(Hồ Tây)도 하노이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예요. 석양이 지는 풍경이 주변의 주택과 어우러지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겨 현지인들에게 휴식처로 사랑받는 곳이에요. 밤에 오토바이 타고 호수 주변을 돌며 바람을 쐬는 것도 하나의 묘미이죠. 서호 주변의 길은 매우 아름다워 커피나 코코넛을 들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노이의 꽃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호 주변에서 파는 반돔(Bánh Tôm)이라는 음식을 좋아해요. 반돔은 밀가루나 쌀가루에 새우를 묻혀 기름에 튀겨 만들어요. 길거리에 서도 반돔을 삶아놓고 판매하는 상인이 꽤 많아요. 참고로 베트남에서 가루로 만든 음식에는 ‘반’이라는 말을 붙여요. 또한 저는 ‘옥동(Oác Nồng)’이라는 음식도 맛있게 먹었어요. 옥동은 한국 말로 하면 삶은 우렁이 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우렁이를 삶은 요리예요. 레몬그라스와 라임 잎을 우렁이와 함께 삶아서 깊은 맛을 내고, 삶은 재료들에 생강을 썰어 넣어 소스를 만들어요. 베트남에 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쌀국수를 먼저 찾아요. 물론 쌀국수도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이고 정말 맛있지만, 쌀국수 말고도 다양한 음식이 있답니다. 쌀국수를 먹을 땐 길거리에 있는 노상 음식점보다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요. 베트남은 개방형 주방이 많아서, 육수를 직접 끓이는지 살피고 적당히 깨끗한 식당에 들어간다면 맛있는 쌀국수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깔끔한 곳은 맛이 없어요(웃음)

조미경 기자 99migyeong@hufs.ac.kr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HUFS Global Archives ③
– 우리학교에서 세계 평화를 모색하다 : 제1회 모의 UN 총회 개최 사진 기록물



▲제1회 모의UN총회 진행 장면



▲제1회 모의UN총회 단체사진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삼동제, 세 학교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잔디광장에서 △우리학교△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가 연합해 진행하는 '삼동제'의 개막식이 열렸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은 개막식에 참석해 세 학교의 교류를 축하했다. 축제 행사는 세 가지 테마에 따라 △역동전△악동제△감동제로 나뉘었다. 이를 주

◆삼동제가 무엇인가

삼동제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학교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가 함께 진행한 첫 연합축제의 정식명칭이다. 이는 '세 학교를 합하고 세 동네가 모여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되는 축제'라는 뜻으로 '3'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잔디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이선범 우리학교 동아리 연합회장(이하이 동연장)은 "300일간 3개의 학교가 300번 이상의 회의를 했고 여기서 '삼동제'라는 명칭이 어기웠다"고 밝혔다. 또한 삼동제는 세 학교 모두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적 인접성이 축제의 기저에 깔려있다. 이에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회 및 영화제가 진행됐다. 삼동제의 행사는 크게 △역동전△악동제△감동제로 나뉘어 각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역동전은 각 학교의 동아리연합회와 스포츠 단체의 주최 하에 다양한 운동종목으로 승부를 겨루는 연합체전이다. 우리학교에선 교내 공식 스포츠 플랫폼 '휴스포츠(HUFSPORTS)'가 주관 단체로 참여했다. 경기종목은 △축구△농구△테니스△피구△이스포츠(E-SPORTS)로 구성됐다. 특히, 이스포츠전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돼 시청의 편의를 높였다. 지난달 9일, 각 학교의 모든 대표 선수단들이 모여 개회를 선언하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역동전에선 5번의 예선경기와 5번의 본선경기가 진행됐다. 그 결과 시립대가 총 80점을 기록하며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다. 한편, 우리학교와 경희대는 종합 50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주최 측은 경기뿐만 아니라 출전선수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했다. 또한 세 학교의 디제이들이 출연한 '역동전 오피셜 애프터파티'와 출전선수들에게 응원 문구를 보내는 '선수단 응원 이벤트'도 열렸다.

두 번째, 악동제는 다채로운 '음악'을 주제로 한 공연제다. 공연은 △랜덤플레이댄스△추억의 복면가왕△스트릿댄스△이스턴하모니△힙합디스전으로 구성됐다. 이 중 △힙합디스전△스트릿댄스△이스턴 하모니는 각 학교의 동아리들이 주역이 됐다. 특히, 힙합디스전과 스트릿댄스는 학교 대항전으로 진행됐다. 삼동제가 개최되기 전, 주최 측은 각 학교 동아리들의 춤 및 힙합 음악 영상을 공개해 본격적인 악동제의 포문을 열었다. 청량리역 광장에서 세 학교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연합 클래식 공연을 15분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2000년대 노래를 부르는 추억의 복면가왕과 무작위로 재생된 노래에 춤추는 랜덤플레이댄스엔 동아리원을 포함한 다수의 재학생들이 참가했다.

세 번째, 감동제는 세 학교의 재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학술 및 전시회다.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잔디광장에서 각 학교의 중앙동아리의 공연과 더불어 강연 및 시 낭송을 즐길 수 있는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렸다. 주최 측은 음악과 함께 다양한 인문학 장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간을 '아르페지오'로 정의했다. 이날 동시에 진행된 연합전시회와 콤포노 영화제에선 각 학교 재학생들의 작품이 전시 및 상영됐다.

◆삼동제가 진행되기까지

삼동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엔 세 학교의 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의 노력이 있었다. 개최를 선언한 지난달 25일, 김 총장은 세 학교의 지역적 인접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삼동제 참여를 독려했다. 김 총장은 "세 개의 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가 모여 △체전△공연△학술을 교류하는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며 "서로 인접한 대학들이 협업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교류하는 귀한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동연장은 지난해 11월 동아리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경희대와 시립대 동아리연합회장 후보들과 교류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 동연장은 "세 학교의 동아리연합회장 후보들이 세 학교의 교류전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우며 함께 선거를 준비했다"며 "대학 간 교류전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성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고 동아리를 중심으로 교류의 장이 열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삼동제를 기획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한 그는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다른 대학의 교류전과 달리 일반 학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고 싶었다"며 "체전에만 국한되지 않는 동아리 및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와 함께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삼동제 기획단을 구성했다. 삼동제 기획단은 크게 △체육△공연△문화 및 생활 분과로 나뉘어 활동했으며 각 기획단은 공연과 체전 등의 행사를 기획·집행했다. 이 동연장은 "의제 문화제와 같은 우리학교 내 행사를 함께 진행하다 보니 동아리연합회 내 인력만으로는 부족했다"며 "동아리연합회만의 축제가 아닌 학우들도 함께 기획하는 축제가 되길 바랐는데 본래의 취지가 성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각 기획단이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실무를 담당했다면, 집행부는 각 기획단의 집행을 지휘하고 축제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집행부는 각 학교의 △총학생회 임원진△동아리연합회장△기획단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축제의 큰 틀에서 기존의 기초를 유지하며 의사결정을 했다.

세 학교가 모인 만큼 삼동제 기획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었다. 이 동연장은 "각 학교마다 각자의 일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의사결정 처리방식에서 충돌하는 지점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조율해 나가면서 오히려 좀 더 발전된 소통방식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생자치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시대적 관습에 침체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학교가 다른 학교와 교류하면서 새로운 학생자치사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세 학교들이 협업해 학생자치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개막식에서 "동대문구에 위치한 특색있는 세 개의 대학이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응원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축제는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축사를 전했다. 또한 박영국 경희대 총장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열린 폐막식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학생들이 보여준 △노력△경쟁△협력의 정신이야말로 청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 개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우리학교 여자축구부의 수상



▲세 학교 학생들의 작품 전시



▲경기 전 인사하는 선수들

교류의 장을 열다

최한 우리학교 동아리 연합회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축제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이에 처음으로 개최된 세 학교의 연합축제에 △행사구성△참여자들의 반응△기획과 정△앞으로 삼동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봤다.



▲삼동제를 즐기는 학생들



▲경기에 참가한 우리학교 테니스 선수들



▲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가수 노지훈

첫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제2회 삼동제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동연장은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기획단 등이 축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세 학교의 교류가 처음이라 분명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교류전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삼동제에 대한 반응

세 학교가 처음으로 축제를 같이 기획한 만큼 지속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학생들 또한 많았다. 삼동제에 참여한 박주안(사회·미디어 15) 씨는 "첫 축제라 홍보가 활발히 되지 않아 아쉬웠지만, 주최 측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립대에 재학 중인 신원재 씨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런 축제를 많이 상상했는데 현실은 상상과 많이 달라 실망한 적도 있었다"며 "이런 교류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즐겨서 좋고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 학교의 교류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삼동제 중 악동제에 참가한 황문창(영어·영어 17) 씨는 "세 학교가 같이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러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다른 학교와 교류할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미(경영·경영 18) 씨는 "학생들이 하는 공연인데도 완성도가 높아 재밌게 봤다"며 "이렇게 재밌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길 바라며 학술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희대에 재학 중인 김진아 씨는 "연고전이나 수도전을 보면서 우리학교에서도 다른 학교와 함께 교류하고 경쟁하는 축제가 생기길 바랐다"며 "세 학교가 가까이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축제를 하면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삼동제엔 △우리학교△시립대△경희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주민들도 함께 했다. 동대문구민인 박민희 씨는 "학생들이 모두 노래를 잘해 정말 멋있다"며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소감을 밝혔다.

◆삼동제, 그 이후는?

삼동제는 세 학교의 첫 연합교류전이란 우려의 시선 속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삼동제가 원활히 진행된 데엔 △공연기획단△체전기획단△알파기획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각 기획단원은 동아리 연합회와 총학생회를 포함한 학생들로 구성됐다.

삼동제는 연합과 교류의 의미를 가진 새로운 축제의 틀을 제시했다. 세 학교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학생자치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동연장은 "이번 축제는 관습적으로 해오던 행사만을 주최했던 학생자치의 한계점을 뛰어넘었고 새로운 트렌드를 끌어 냈다"며 삼동제의 의미를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해 "지역사회와 학

생자치가 상생하는 축제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세 학교가 함께 진행했던 첫 행사였던 만큼 보완해야 할 점도 존재했다. 주최 측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공식계정을 통해 삼동제의 행사를 소개하고 이벤트를 진행했다. 체전 기획단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한 '게토레이 챌린지'를 진행해 재학생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처럼 활발한 온라인 홍보에 비해 오프라인 홍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오수암(일본·일언문 15) 스포츠 대표는 "이번 해엔 온라인 중심으로 삼동제 홍보를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세 대학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화해 내년엔 더 나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진영 갈등으로 번진 검찰 개혁, 향방은?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선 '제7차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이하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의 주최로 열렸으며 전국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등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검찰 내부 적폐 세력 청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이는 가운데 검찰 개혁 논란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 검찰 개혁의 발단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탄생한 국가기관이다. 검찰이 가진 검찰권은 형벌권의 실현 과정에서 재판 과정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처럼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가진 국가적 지위와 책임은 막중하다.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독점권△수사권△수사중결권△경찰 수사 지휘권△공소취소권 등 독점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만한 장치는 없다. 이에 최근 검찰 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몇 년 전 국민적 관심을 끌며 논란이 됐던 일명 '고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먼저 지난 2008년 3월, 고장자연 씨(이하 장 씨)는 조선일보 일가 등에 대한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 상당히 많은 유력 인사가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 넘겨진 이는 장 씨의 매니저와 전 소속사 대표뿐이었다. 이에 해당 인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비리 수사의 의혹이 일었으나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로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2013년 7월,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하 김 전 차관)은 성폭력 범죄와 성접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성폭력범죄지법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에 대해 부실 수사 및 바꾸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설치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해 6월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에 부쳤으나 당시 의혹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처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혐의에 그쳤다. 이러한 논란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 여론은 크게 일기 시작했다.

◆ 갈등의 시작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한 갈등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하 조 장관) 수사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심화 됐다. 앞서 조 장관에 대해선 △자녀 입시 부정△운동학원 관련 비리△사모펀드 운용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최근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중앙대학교 교수(이하 정 교수)가 자녀 입시를 위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에 대한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했으며 정 교수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강압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이는 검찰 개혁 촉구 시위의 계기가 됐다. 해당 시위 참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정치검찰 퇴진' 등의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들고 검찰청사 일대를 행진했다. 주최 측은 "검찰과 언론이 조 장관과 정 교수를 피의자로 몰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피해자"이며 "진짜 공동 정범은 약 70년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과 이들의 정보를 받아쓰는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이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이 확인됐고,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경찰과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야당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촛불 집회가) 정치권에 지체 말고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발족식에서 논란 당사자인 조 장관은 촛불 집회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역사상 가장 뜨겁다"며 "검찰 개혁은 유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도적 통제 장치가 없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 촛불시위 진행 장면 (출처: 국민일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국 관련 수사가 "황제 대우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본래 예정돼 있던 1차 조사에서 정 교수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왜 정 교수를 긴급체포 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입을 맞출 시간을 주냐"며 "검찰은 정 교수에게 '황제조치' 까지 시켜주는 파격적인 예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가 늦어지게 되면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검찰은 눈치 보지 말고 모든 의혹의 정점인 조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러한 주장은 촛불 시위의 맞불 시위 격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이하 광화문 집회)'로 이어졌다. 이번 달 3일 열린 광화문 집회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등을 포함한 보수 단체가 참여해 문재인 정부와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위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하 황 대표)△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여러 인사도 참여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며 "대통령이 국정을 내팽개치고 진영 지키기를 고집한다면 거센 민심이 정권을 뒤엎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 검찰 개혁 방향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공개적인 검찰 개혁안 마련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번 달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자체개혁안을 내놔다. 해당 개혁안엔 전국 검찰청 가운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세 곳을 제외하고 특별수사부*(이하 특수부)를 모두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검찰 내에서 파견 근무를 할 시에도 특수부와 같은 직접 수사부 서로 가는 것은 통제 대상이 된다. 이는 집중돼 있던 검찰 권력을 줄이고 무리한 수사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검찰청 특수부 폐지는 사실상 이전부터 진행됐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이번 달 4일 개혁위는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 및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검찰 자체개혁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폐지까지 지시한 셈이다. 이어 개혁위는 검사의 내부 파견 및 직무대리 최소화도 지시했다. 이는 직접 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부서의 규모가 커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처럼 검찰 개혁 및 그 방향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최정예 수사부서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힙 소 사 이 어 티

국악동아리 '비나리'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엔 학생들이끼리 국악을 연주하는 동아리가 있다. 이 동아리는 선후배가 서로 도우며 연습을 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연하며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에 힘쓴다. 이에 홍지수(국제·글로벌 18) 씨를 만나 국악의 매력을 알리는 국악동아리 '비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악동아리 '비나리' 단체사진

Q1. '비나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비나리'는 29년째 운영되고 있는 중앙 국악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선 △가야금△해금△거문고△대금 등 다양한 국악기 연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내·외 행사공연과 매년 개최하는 정기공연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Q2. 왜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국악에 관심이 있었고 이 관심을 바탕으로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해외 여행 중 우연히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직접 보여줄 수 있었으면 했던 소망과 열정이 저를 국악동아리로 이끌었습니다.

Q3. 동아리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 동아리에선 주 1회 악기별로 멘토와 개인지도를 진행하고 동아리원들은 동아리방에서 개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엔 홈커밍데이를 열어 역대 비나리 선배와 합주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 후 악기 연주에 대한 조언을 통해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엔 정기공연을 개최해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외 찬조공연 및 행사에 참여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국악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4.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언제인가요?

이번 해 여름에 국제연어학 올림피아드가 우리학교에서 진행됐는데, 당시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초청받



아 세계의 약 360여 명의 청소년에게 국악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학생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악기를 배우고자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언 어장벽이 존재함에도 국악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음악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Q5. 활동 중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악기를 처음 배울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가야금과 해금 중 어떤 악기를 선택할지 고민이 돼 두 가지 악기 모두 체험해 봤습니다. 가야금은 손끝에, 해금은 손 마디에 무리가 갔습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악기를 다루다 보니 이젠 익숙해져 능숙히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낯선 것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악기 연주도 적응하고 나면 괜찮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6. 2학기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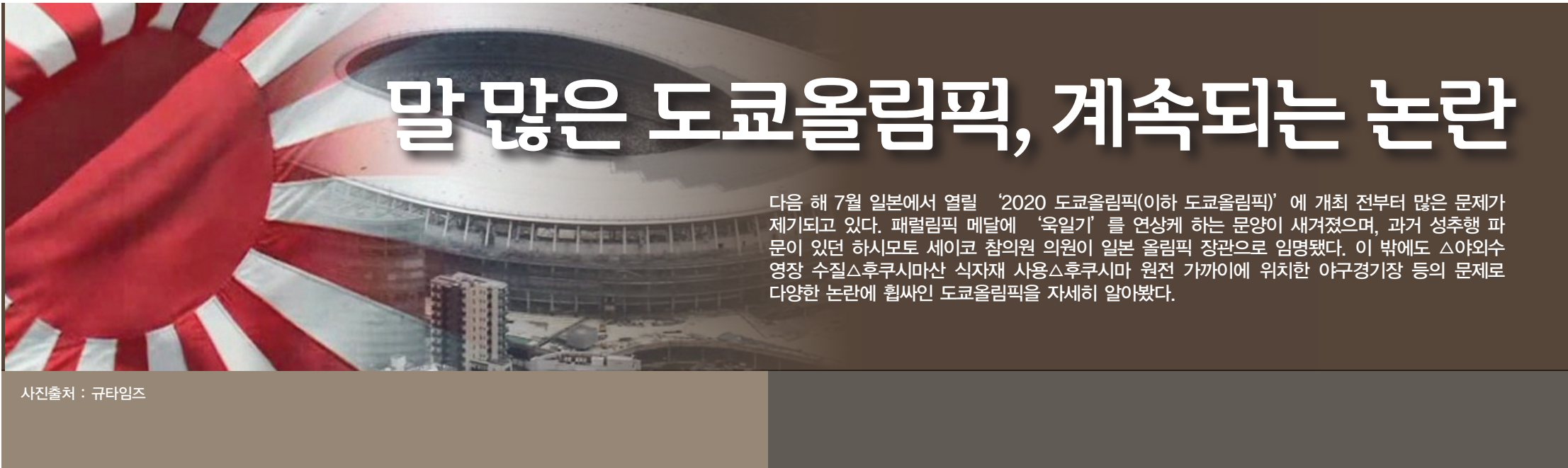
2학기의 주요 행사는 정기공연입니다. 정기공연은 1년간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발표하는 큰 행사이기에 이에 집

중할 예정입니다. 정기공연 전에 합숙 훈련을 통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비나리의 정기공연은 다음 달 20일 수요일에 우리학교 세화관에서 개최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7. 동아리 부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29기 비나리들!! 내가 완벽하 화장은 아니겠지만 이번 2학기 정말 최선을 다해 비나리를 위해 열심히 두 발로 뛰 어다닐게! 내가 정말 아끼는 거 다들 알지? 우리의 성공적인 정기공연을 위해 아자 아자!! (비나리 신문 데뷔했다 ㅎㅎ)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사진출처 : 뉴타임즈

◆정치적 논란이 된 욱일기 사용

지난달 12일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는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사안별로 금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박 장관)은 “욱일기는 19세기 말부터 이어져 온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며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이라며 “현재에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역시 정치적 문제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동조의 뜻을 밝혔다. 또한, 도쿄 패럴림픽 공식 메달이 욱일기와 흡사하다는 비판도 있다. 도쿄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메달 디자인은 방사형으로 뻗은 선의 형태로, 이는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해당 메달 디자인은 총 421건의 응모작 중 부채에서 영감을 얻어 결정됐다”며 △바위△꽃△나무△잎△물 등 일본의 자연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욱일기는 빨간색 원 주위에 방사형 선인 육광(旭光)을 그린 깃발이며 현재 일본 자위대의 공식 기(旗)이기도 하다. 태양 주위로 햇빛이 퍼져나가는 문양은 일본에서 일족문(日足紋)이라 불리며 오래전부터 사용돼왔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의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軍旗)로 사용됐으며 이러한 문양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 육군과 해군이 해체되면서 욱일기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지됐다. 이후 1954년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를 창설하면서 욱일기는 다시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독일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문양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과는 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욱일기는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OC는 욱일기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우려에 대해 “경기장이 정치적 주장의 장소가 되선 안 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올림픽 현장은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 활동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은 남·북한 합동팀의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한반도기의 독도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독도를 지도에서 삭제했다.

◆일본 올림픽 장관의 자질 부족 논란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하시모토 세이코(이하 하시모토 장관)를 올림픽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시모토 장관은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 동메달을 따낸 일본 동계올림픽 사

상 최초의 여성 메달리스트이다. 또한 사이클 종목으로 동·하계 올림픽에 총 7번 출전했다. 하시모토 장관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6년 리우올림픽 당시 일본 선수단장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 다음 날 일본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하시모토 장관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일명 ‘갑질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아베 총리는 하시모토 씨를 올림픽장관으로 임명했다.

◆기준 미달의 아외수영장 논란

도쿄올림픽엔 아외수영장 수질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달 11일엔 테스트 이벤트로 ‘오픈 워터 수영 대회’가 진행됐다. 도쿄의 오다이바 해상 공원에서 트라이애슬론과 남녀 5km 마라톤 수영이 펼쳐졌는데 이 수영장의 수질과 수온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수영연맹 규정에 ‘수온이 섭씨 31도를 넘으면 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대회에선 경기가 오전 7시에 진행됐음에도 경기장의 수온이 섭씨 30도를 넘었다. 또한 2017년 10월 진행된 수질 조사에서 오픈 워터 경기장의 박테리아는 국제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조직위 관계자는 폭우로 인한 일시적인 수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정상적인 경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났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처럼 경기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 조직위는 경기 시간을 오전 5시로 앞당기고 수중에 스크린 필터를 만들어 문제없이 대회가 치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기장의 수온이 1도만 높아져도 정상적인 대회 개최에 문제가 발생하기에 사상 최초로 경기가 취소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성 문제

전임 올림픽장관이었던 스즈키 다이치는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세계 각국 선수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지역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유통함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일본은 국제적인 방사능 수치 기준보다 20배 높은 기준을 세우며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워질수록 일본의 기준도 넘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체육회는 방사능 오염 수치에 대한 △토지△대기△해양 자료는 있으나 식자재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IOC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다른 참가국의 문제 제기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식사를 따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올림픽에서 쓰이는 식자재 뿐만 아니라 경기와 성화의 장소 또한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할 소프트볼과 야구의 예선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 야구장은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곳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약 70k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도쿄올림픽의 성화는 원전 사고현장에서 2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출발한다. 이는 직선거리로 치면 서울시에서 성남시까지의 거리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

이번 달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에 대해 “욱일기는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이다”며 “평화의 제전이 돼야 할 올림픽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 안에서도 욱일기 반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일본 측과 IOC에 욱일기가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도쿄올림픽 논란에 대해 “우리 선수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가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대한체육회에서도 IOC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다른 나라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조직위가 방사능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기관들과 면밀하게 분석해 지속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19. 9. 30(월) ~ 10. 4(금)	10.26(토) 10:00	11.7(목) 14:00	11.11(월)~11.15(금)
일반전형	2019. 11. 11(월) ~ 11. 15(금)	12.7(토) 10:00	12.19(목) 14:00	12.23(월)~12.27(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다.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나에게 뉴스가 갖는 의미

어렸을 때 아침마다 집 앞에 오는 신문을 아빠께 가져다드렸다. 그러면 아빠는 아침을 드시며 그 신문을 읽곤 하셨다. 커다란 종이에 쓰여 있는 뾰뾰한 글씨를 읽는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우리 집 텔레비전엔 항상 뉴스가 켜져 있었다. 뉴스를 보는 시간은 어린 나에게 그저 따분한 시간이었다. 재밌는 내용도 없었고 연예인도 나오지 않는 뉴스를 보는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에서 뉴스가 가장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중학생 때, 처음 제대로 뉴스를 봤다. 그때 본 뉴스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따분하기만 하고 필요 없는 정보들만 전달하는 줄 알았던 뉴스가 내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신기해서, 나중엔 사건들이 궁금해서 뉴스를 계속 봤다. 그러다보니 사건들을 찾아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멋지게 보였다. 기자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을 때쯤,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피노키오’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다. 실제 기자들의 생활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기자에 대한 환상이 더욱 커졌다. 특히 드라마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청소년국회 기자단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을 하면서 내가 기사를 쓴다는 것이 신기했고, ‘최민선 기자’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 기자라는 장래 희망을 갖게 됐다. 어쩌면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 외대학보에 지원해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외대학보에 지원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내가 신문을 실제로 발행한다는 것이 좋았지만 부담으로 다가왔다. 고민 끝에 외대학보에 지원을 했고 면접을 봤다. 어차피 지원한 거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면접 준비도 많이 했다. 하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망한 면접에 합격할거라는 기대는 사라졌다. 외대학보에 떨어졌다고 확신하고 있을 때 쯤, 합격문자가 왔다. 처음에는 떨어졌다는 소식인 줄 알고 실망했는데 다시 문자를 읽어보니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때의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외대학보 활동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내가 생각했던 활동은 한번 기사만 쓰고 내면 끝인 활동이었다. 하지만 학보 활동은 쉽지 않았다. 첫 마감을 할 때의 계속되는 수정작업이 너무 힘들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왔지만 생각보다 훨씬 힘든 활동에 과연 이게 맞는 일인지에 대한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조판까지 끝나고 내 이름이 적혀진 신문을 보니 학보활동에 대한 회의감 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다. 아직도 아이템을 찾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사를 쓰는 작업은 힘들다. 매번 마감 때마다 밤샘을 각오하고 오지만 막상 밤을 새려니 부담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함께 일하는 학보 사람들과 내 이름이 적혀진 신문을 보면 학보 활동을 하기 좋았다는 생각도 든다.

아직은 모든 게 익숙하지 않고 실수도 많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 뼉 더 성장한 기자가 돼있을 것을 기대한다.



최민선 기자

억압의 연속선에서 [로베르 르빠주의 ‘887’을 보고]

로베르 르빠주는 <887>의 연출자이자 유일한 출연자다. 그는 △태양의 서커스△니벨룽의 반지△안데르센 프로젝트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한 바 있다. 특히 태양의 서커스와 니벨룽의 반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무대 위의 마술사’라는 명성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르빠주가 연출한 다양한 공연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887>이 특별한 이유는 그의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다. 무대장치들 하나하나가 그의 기억 속 공간을 의미한다. 실제로 공연에 등장하는 △아파트△택시△주방은 허구적 공간이 아니다.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르빠주는 이 공연이 무의식 속 기억의 궁전에 자리하던 이야기에서 파생됐음을 언급한다. 기억의 궁전이란 고대 로마 때부터 전해지는 기억술로, 특정 장소를 상상하고 동선을 생각해 기억해야 할 것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르빠주가 기억의 궁전에서 꺼낸 추억은 바로 캐나다 퀘벡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다. 그에게 퀘벡이란 7명의 대가족이 작은 아파트에서 부대끼며 살았던 상징적인 장소다. 당시 퀘벡은 영국계 주민들과 프랑스계 주민들의 갈등과 정체성의 위기를 안고 있었다. 프랑스인들의 이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퀘벡 주민들이 많아졌으며 그들 중 다수는 퀘벡주를 캐나다 연방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내겠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스스로를 퀘백인 혹은 퀘벡쿠아로 정의하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계 캐나다인들은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을 향해 ‘하얏게 말하라’라는 뜻의 ‘SPEAK WHITE’를 외

쳤다. 이는 노예가 존재했을 시절, 백인들이 노예들에게 어느 때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영국계 캐나다인들은 해당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강요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프랑스계 캐나다인이었던 미셸 라몽드 시인은 당시 영국계 캐나다인의 차별과 억압을 꼬집는 시 ‘SPEAK WHITE’를 발표했다. 르빠주는 이 시를 관객들을 향해 격양된 어조로 쏟아낸다. 그가 내뱉는 시를 들으면서 “여전히 사회 속 자리 잡고 있는 억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리고 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및 기업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을 떠올렸다. 지난해 채용회사 ‘사람인’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중 51%가 직장 내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 중 여성의 경우 65.7%, 남성의 경우 41.3%가 유리천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유리천장을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으로 ‘직책자를 남성 직원으로만 임명할 때’를 꼽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임원 이상’으로 승진한 직원 중 남성은 28.1%인 반면, 여성은 5.9%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르빠주가 공연에서 그려낸 억압된 과거 상황은 현대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회의 다양한 억압들은 여전히 우리와 공존한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우리사회가 밝아온 발자국을 돌아보고 만연히 존재하는 억압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역사 속 차별과 억압을 지적하는 시 ‘SPEAK WHITE’를 낭독할 수 있을 것이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c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주토피아]

‘주토피아’는 야생의 동물들이 인간처럼 현대문명을 누리며 사는 도시이다. 주토피아에 사는 토끼 ‘주디’는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연약한 토끼는 경찰이 될 수 없다며 주디를 놀렸다. 어른이 된 주디는 이러한 편견을 깨고 주토피아 최초의 토끼 경찰이 된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토끼의 이미지 때문에 주디는 주차 단속반으로 배치 받게 된다. 일을 하던 주디는 여우 ‘닉’이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것을 목격한다. 이에 주디는 닉에게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닉은 오히려 허가증도 받았으며 주디에게 합법이라고 따진다. 그렇게 둘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비버부인의 남편이 사라졌다는 실종신고가 들어오게 된다. 마침 주토피아에선 포유류 납치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서장은 주디에게 이번 사건을 주며 48시간 이내에 남편을 찾지 못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이에 주디는 닉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둘은 함께 수사를 시작한다. 둘은 수사하며 비버 부인의 남편 말고도 납치된 포유류 동물들도 찾게 된다. 그러나 기자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던 주디는 육식동물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을 하고 이에 상처받은 닉은 자신도 육식동물이라며 주디를 떠난다. 주디의 말 때문에 주토피아의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들을 피해다니고 결국 동물들 사이에 분열이 생긴다. 이에 죄책감을 느낀 주디는 경찰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떠난다. 고향에서 닉을 만난 주디는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

한편 닉은 여우는 사기꾼이라는 편견을 깨고 경찰학교를 졸업해 경찰이 되며 영화는 끝난다.

‘작고 연약한 토끼는 경찰이 될 수 없어’, ‘여우는 교활해’. 이 영화에서 다른 동물들이 주디와 닉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다. 영화 속 세계는 모두가 평등한 민주공화정이지만 그 안에서도 차별과 편견은 존재한다.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며 모두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주디 역시 사실은 다른 동물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디가 남들과 다른 점은 자신의 편견과 다른 이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다.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를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디는 한걸음 더 성장했다.

영화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순간 쏟아질 비난과 따가운 시선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영화는 당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디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1035호 학보를 읽고

강사법 시행, 복지와 권리 사이의 균형

방학이 끝나는 것을 실감하는 그 첫 번째 시기, 바로 수강신청 기간이다. 아침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피시방에 들어서면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고 컴퓨터 화면에 조그맣게 떠있는 네이비즘을 보며 그 순간만큼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과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본격적인 강사법 시행 이후, 이번 학기 수강신청은 길었던 여름만큼 유난히 버거웠다. 전공 수업임에도 수강신청 기간이 될 때까지 강사가 정해지지 않아 수강신청 인원이 0명으로 배정된 수업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고 기존 교수들의 교체로 인해 강의 계획서나 강의평한 출조차 없는 상태의 수업을 그저 강의명에만 의존한 채, 시간표에 넣는 일도 허다했다.

이번 외대학보는 ‘강사법이 대체 뭐길래?’ 하는 궁금증에 대해 학생들의 머릿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듯했다. 강사법 때문이라더라, 강사법이 개정돼 전임교수들이 교체됐다더라 정도의 수박 겉핥기 수준의 정보만을 가진 채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투덜거리기 바빴다. 다소 혼란스러웠던 이번 수강신청에 학교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의문점을 가졌던 학생들에게 시기적절한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마땅히 원하는 수업을 들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돈을 주고 강의를 사교팔아만 하는 현실을 꼬집어냄으로써 학생들이 직면하고 겪어온 답답한 상황들을 공론화시켜 모두가 반박 생각할 기회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강사법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게 된 불편함을 당장 다음 학기부터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다. 강사법이 △강사의 처우개선△교육권 보장△공정한채용을 위해 시행된만큼 취지에 맞게, 동시에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 보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다. 우리학교에 입학한 지도 이제 2년 차, 5층의 계단을 두 칸씩 뛰어 올라가는 일은 익숙해졌다. 학생들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계속됐고 지난해 정기총회의 홍보 프린터에 적혀있던 문구가 어렴풋이 기억난다. “정기총회에 참석하시어만 엘리베이터가 설치 됩니다”였다. 하지만 그 후로도 엘리베이터의 설치 예정 소식은 들리지 않았기에 외대학보에서 인문관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척 반가웠다. 다만 이동권의 보장이 주체인 만큼, 학교에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을 촉구하거나 다른 학교의 사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처방안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외대학보 1035호엔 금급했던 도서관 공사 진행 현황부터 우리학교의 여러 소식을 포함한 생각해볼 거리를 주는 기사들이 많이 담겨있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외대학보의 12페이지를 빼곡히 채워준 기자분들께 박수를 드리고 싶다. 무더운 여름에도 발로 뛰면서 인터뷰를 하고, 틈틈이 글을 쓰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외대학보의 전통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하진해(사회·미디어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35호 학보를 읽고

학생들을 위한 신문, 외대학보

본격적인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9월 말이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학교생활을 시작하느라 학생들은 들떠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엔 물살인 학생들이 유난히 많다. 바로 강사법 시행 때문이다. 처음 들어보는 ‘강사법’ 때문에 시간표를 짜는 것에 난항을 겪는 학우들이 넘쳐났다. 1035호엔 이번 학기 최대 이슈였던 강사법이 자세히 집필됐다. 사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강사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봤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035호 외대학보를 보면서 강사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돼 고맙았다. 또한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구할해 학교의 불편한 부분들을 제기한다는 부분에서 학교 발전의 초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더 나아가 강사법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의 고질적 합병증인 강의 사교팔기에 대해서 지적해 학생들의 거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줬다. 특히, 외대학보는 학교 측의 입장에 상세히 전달해 학생들이 현상황을 납득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작은 화합의 장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4면에서의 기사 반복 오류는 독자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사법 기획기사와 함께 글로벌캠퍼스 교내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기사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제고해줬다. 글썽 교내 셔틀버스에 대한 불만은 학생들의 끊임없는

뜨거운 감자다. 백년관에서 정시에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이터문관이나 인문경상관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가면 수업시간이 훌쩍 지나있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수업에 대한 방해가 되기에 학생들도 셔틀버스에 대해 예민하고 항상 불만을 토로한다. 교내 셔틀버스 기획기사에서도 앞서 말한 학생들의 의견을 잘 포력해줬다. 그러나 장애우들이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과 같이 인터뷰 대상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일반 학생들도 교내 셔틀버스 운행에 불편을 겪는데 장애우 학생들은 더 많은 노고를 토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도 장애우 학생들까지 고려하는 해결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기획기사들에 매우 공감이 갔다.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신문에 실어 더 큰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단 생각했다. 다시 한번 외대학보가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신문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한 홍콩 시위에 대한 학술기사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님의 시각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외대학보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하고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의 신문으로 다가왔다.

신유진(동유럽·우크라이나 18)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가을엔 감성을 찾아

애플이 이번 달 25일 우리나라에 아이폰 11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 11 시리즈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층 증폭됐다. 699달러의 저렴한 가격에도 전세계 사람들의 아이폰 11 수요가 몰렸으며 애플은 최대 800만대의 추가 생산에 돌입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 애플은 △디자인△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모두 갖춘 아이폰 기기를 출시해왔고, 대부분의 아이폰 시리즈들은 꾸준한 큰 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인기의 요인 중 하나로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애플의 감성 마케팅을 꼽는다. 마니아 층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던 애플은 자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시대를 창조하는 선도자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광고나 애플 고유 이야기를 만들며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애플의 감성 마케팅 그리고 애플 자체에 완전히 매료됐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토록 감성에 열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요즘 시대에 감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본다. 눈 한 번 찔러 감으면 많은 것이 바뀌어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으며 나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들을 숨가쁘게 쫓아가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선 감성(感性)을 이성(理性)에 반대되는 말이라며 ‘외계의 대상을 오관(五官)으로 감각하고 지각해 표상을 형성하

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 정의했다. 칸트는 철학 속에서 감성을 강조하며, 이를 ‘우리가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으로 표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감각·지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감성의 부재로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감성을 통해 자신을 알고 표출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다른 사람과 사회 현상을 생각·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이어진다. 즉, 감성은 사회 속 사람들의 연결을 용이하게 한다. 이성만을 중시하던 사람들도 결국 이러한 감성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일상 속에서 감성을 찾아나섰다. 이는 당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 인스타그램에 ‘감성’을 검색해보면 나타나는 △감성사진△감성글귀△감성영화 등의 해시태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기나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사뿐히 떨어지는 낙엽△풍성한 지란 곡식들△국내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같은 가을 풍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감각·지각하게 만든다. 감성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지각한 만큼 가을만이 줄 수 있는 정취에 푹 젖어 이번 달엔 더욱더 감성적인 사람이 되보고자 한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나마 멈춰 자신의 온전한 감각에 빠져 마음 속 깊은 곳의 감성을 찾아 함께 떠나보자.

김지수 편집장 97didu@hufs.ac.kr



광화문과 서초동을 바라보며

이번 달 3일,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지난달 28일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이번 달 5일엔 서초동에서 두 집회가 동시에 일어났다. 두 진영은 양보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양 진영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처럼 양 진영의 대규모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양 진영 모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또, 양 진영 모두에게 각자의 주장에 대해 ‘결정적으로 고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원효(元曉, 617-686)의 『대승기신론소기회본(大乘起信論疏記會本)』 ‘생멸문(生滅門)’에는 ‘한쪽만을 고집하면,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 원효의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 ‘삼사문(三事門)’에는 ‘만일 한쪽만을 결정적으로 취하면 두 주장이 모두 그릇되게 되고, 만일 참으로 집착하지 않으면 두 주장이 모두 옳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방식의 해결(?)에는 불교적으로는 중도(中道)의 입장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원효방식으로 말하면, 이런 입장이 바로 화쟁(和靜)이다. 어느 한 쪽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 모두 현재는 어느 진영에 속해서는 안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이 어느 진영의 대표자가 되는 순간 이런 첨예한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국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 양상은 상당히 많은 부분 당신들의 정치력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당신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들 자리에서는 양 진영의 입장에 모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당신들의 지위는 여러분 자신이나 어느 한 쪽만을 지지하는 국민만이 아닌,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함께 구원해야 하며,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자리다. 당신들의 자리에서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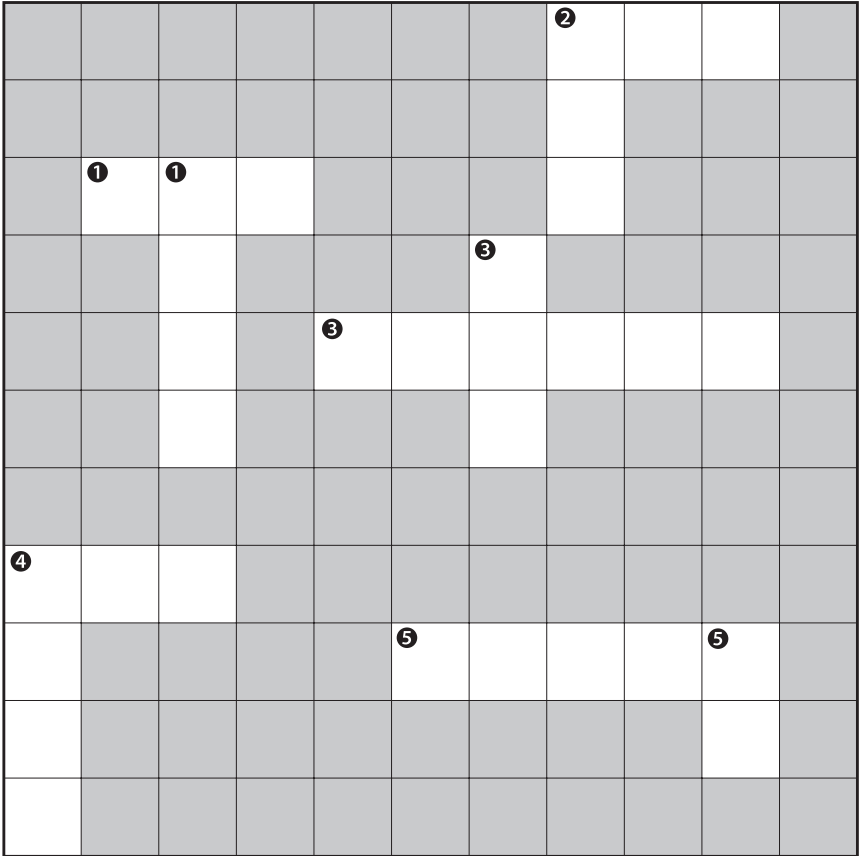
양 진영은 자신들의 진영 이해만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하고 설득할 수 없다고, 갈등상황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양측 모두 상대의 이야기와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나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여도 나의 옳음을 어떤 이야기와 입장을 맞다고 여기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나와 맞지 않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와 주장도 나의 주장과 나의 입장에도 역으로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어느 측의 국민들도 나라를 망치려는 것에 분연히 반대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이 땅에 함께 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것에 동의하고, 앞으로 이것들을 함께 성취해가고 누려야 할 이들인 것이다.

양 진영이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같은 길을 염원하고 같은 길을 갈 사람들이다. 그것을 표면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포장하며 이용하는 이들의 가벼움을 넘어, 깊고 멀게 보고 공통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함께 찾아야 한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우리 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 나는 우리의 광장에서 이렇게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회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런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갈등 상황을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민주적인 과정과 지혜로운 해결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와 우리의 국민의식 그리고 우리의 평화의식이 우리의 자량이 되길 바란다.

이 시점에서 어떤 진영을 지지하고 반대하고를 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득이(不得已)한 일일 수 있다.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 제25장에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런 섭리를 본받는다”고 했다.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일이 이루어져 될 대로 될 것이다. 그 스스로 그런 섭리대로 돌아간 일이 두 진영 모두에게 미래에 좋은 일이 되길 바란다.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십자말풀이



- 가로**
- 1. ○○○, 세 학교 교류의 장을 열다. (6면 참조)
 - 2. 이번 ○○○에는 총 10개의 학회가 참가해 전통춤 및 노래 공연을 했다. (3면 참조)
 - 3. 매해 우리학교 000000에 관한 논문은 불거져 왔고 탄핵과 사퇴가 반복됐다. (4면 참조)
 - 4. '○○○'을 꿈꾸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2면 참조)
 - 5. ○○○○○이란 고대 로마 때부터 전해지는 기억술로, 특정 장소를 상상하고 동선을 생각해 기억해야 할 것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10면 참조)

- 세로**
- 1. 함께 주최한 축제로서 ○○○○대학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1면 참조)
 - 2. 이번 비나리의 정기공연은 다음 달 20일 수요일에 우리학교 ○○○에서 개최된다. (8면 참조)
 - 3. 전임 율령판장관이었던 스키 다이치는 방사는 오염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산 ○○○를 세계 각국 선수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9면 참조)
 - 4. 설경 ○○○○학생회장 사퇴. (4면 참조)
 - 5. 한국어로 치면 ○○한옥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5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자번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외대학보 99기 수습기자(추가)를 모집합니다.

외대학보는 1955년 창간 후 2019년 오늘까지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학교 언론사입니다. 외대학보사에서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할 열정 있는 수습기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모집대상 : 한국외국어대학교 양 배움터 4학기 활동이 가능한 재학생
- 2. 모집기간 : 2019. 10. 13(일)까지
- 3. 지원방법
 - 1)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나 에브리타임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는다.
 - 2) 지원서를 작성·제출한다
 - 3) 합격 발표를 기다린다.

- 4. 입사시험일정
 - 1) 지원서에 적힌 연락처로 '면접고사 및 면접' 장소와 시간을 개별 공지함
 - 2) 합격자 발표일은 추후 개별 통보함

- 5. 지원자 유의사항
 - 1) 4학기 동안 활동 가능한 학생 지원 바람 (외대학보사 임기는 한 학기 수습기간 제외 총 3학기)
 - 2) 합격자는 2주간의 교육 기간을 거쳐 1037호 마감부터 참여하게 됨
 - 3) 합격자는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회의와 조판에 참여가 가능해야 함

- 6. 문의사항 연락처
 - <97didu@hufs.ac.kr>, 서울배움터 기자실: 02)2173-2504
 - ☆ 언론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보사의 문을 두드리주세요.
 - ☆ 외대학보는 열정과 책임감 넘치는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7didu@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지수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경영에 예술을 입히는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만나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선진국 도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 노규성 동문은 △신문대학교 교수△한국디지털 정책 학회 회장△혁신성장 추진 협의회 공동 수석대표△행정안전부 정부 혁신추진 협의회 디지털 혁신분과 위원장 등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현재 판소리 공연을 통해 글로벌 감성소통을 이끌어내며,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경영인이라면 △사명△신념△철학을 갖춰야하며 약자를 위해 함께해야한다는 신념을 펼치고 있는 노규성(경영·경영 80)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만나,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1. 우리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지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웃집 농사와 바느질로 가계를 돕던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은행에 갔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바람을 따라 전주상고에 진학한 거죠. 고교 졸업 후 대신증권에 입사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면서도 지식에 대한 욕망이 컸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지식을 쌓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4년 늦게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에 큰 강점을 가졌기에 많은 학교 중에서 우리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경제와 기업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에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Q2. 대학시절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궁금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해 가톨릭 학생회인 세인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당시 전두환 군부 정권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와 5·18운동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 가긴 했지만, 막상 대학에 가니 학생운동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병업 신부님께 배운 사명감이 발동한 것일까요. 학생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명수배까지는 아니었지만 학생회 간부였기 때문에 붙잡히면 삼청교육대에 갈 판이었습다. 제주도까지 도망을 가기도 했죠. 그 시기가 지난 후, 2학기에 복교가 돼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형편상 열심히 공부해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종욱 교수님께서 우리학교에 미래가 유망한 경영정보대학원이 생긴다며 그곳에 진학하는 것을 추천해주셔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가 경영정보대학원을 처음 설립한 때였는데, 미국 보스턴대에서 경영학 교수를 하던 장유상 박사님이 초대 원장을 맡았죠. 장 원장님께서 보스턴대 커리큘럼을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정보라는 말은 정부에서 쓰던 시절이라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지금 빅데이터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확산에 큰 보람을 느끼고 열정을 다하게 되는 것을 보면 체계는 정말 잘 맞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학원을 입학한 후 학생회장으로 당선돼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며 학생 복지와 교육 시설 발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졸업쯤에 컨설팅 최고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취업해 2년간 일을 했어요. 80년대 생산성본부는 컨설팅 부문에서 국내 최고로 손꼽히던 기관이었는데 단 두 명의 경영정보 전문가를 뽑는 자리에 합격했죠. 생산성본부에서 일을 하다보니 기업에 경영정보 관련 자문을 하려면 현장을 더욱 잘 알아야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정보의 기본은 현장 업무의 전산화인데, 아직 제 내공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죠. 마침 한국신용평가에서 데이터베이스(DB)를 다룰 경력자를 찾더군요. 이곳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 켠에 남아있었던 교수라는 꿈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컸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했어요.

학부 시절에 제가 봤던 대학은 시국으로 인해 항상 혼란했고, 학문적·이론적으로만 접근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돼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컸습니다. 업무와 학업을 동시

에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교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학생들과 소통하며, 제가 기업에서 배웠던 다양한 현장지식과 실무적인 부분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교육자로 일을 하면서도 디지털 정책 학회 활동을 하며 △학계△기업△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모든 활동들이 계기가 돼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Q3. 한국생산성본부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57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입니다. 6·25 전쟁 이후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안정과 성장을 이끌 원동력을 생산성 운동에서 찾았으며, 이러한 생산성 운동을 이끌어 갈 중심체로 한국생산성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최초의 컨설팅·교육 전문기관으로 ‘경영’의 개념과 ‘컨설팅’을 보급했으며, △국가△기업△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생산성본부가 하는 일은 △컨설팅△교육△자격인증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제조혁신△CS△지속가능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재직자 대상으로 직무역량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TQ(정보기술자격)를 비롯한 8개의 국가공인 자격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 자격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 어려운 청소년 대상 ‘비즈니스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지원과 글로벌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스마트팩토리 도입 등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PC가 가진 컨설팅·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을 돕고 자 다양한 글로벌 사업도 최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4. △대학교수△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의원△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 많은 일을 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선천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린시절의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덤벼했습니다. 후천적으로는 노력이에요. 체력을 갖추기 위해 운동도 많이 했고 실력을 쌓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핸드볼, 중학교 때는 축구 선수로 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황했던 시절에 김병업 신부님께서 청년기엔 도전하고 사회 불의에 맞서며 약자들을 위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김 신부님은 성당 앞을 지

나가는 걸인에게 시계와 외투를 벗어주셨고, 오토바이 사고로 선종할 때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의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는데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용기를 주셨죠. 신부님께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배웠습니다. 항상 약자를 위하고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약자와 함께한다는 사명과 신념을 꽃피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5. 경영인으로 일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인상 깊었을 땐 인도 출장에 가서 강연을 하고 그 후 식사 자리에서 판소리를 했을 때예요. 제가 판소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미담이문이 조금 열리더니 외국인 여성이 제 노래를 들어요. 그 후 저에게 한 곡 더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판소리를 한 후에 저는 그분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모여 함께 각자 자기 나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마음과 노래는 어느 곳에서든 항상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흥부가의 돈타령, 춘향가의 사랑가 등 7~8개 레퍼토리가 있는데 외국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발표 영상을 만들고 노래 가사를 외국어로 바꿔서 판소리 공연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손님들을 만날 때 소리를 들려주면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면 비즈니스가 일상처럼로 진행되곤 해요. 아시아는 물론 유럽, 아프리카까지 통하는 걸 보면 △예술△문화의 힘△감성이 갖는 영향력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경영에 예술을 접목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고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쌓으며 생산성이 배가 되



▲인터뷰 진행 중인 노규성 회장

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Q6. 경영인이 갖춰야하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명△신념△철학을 갖춰야 하며 경영의 지혜 7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명 없이 경영을 한다는 것은 경영의 목표가 오로지 돈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대로 사명을 갖추고 일을 할 때 비로소 경영이 제대로 실현되며 그 후에 돈이 따라오게 됩니다. 신념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신념이 있어야만 열정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실용△혁신△민주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실용 경영 철학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내고 운영을 할 수 있고 혁신 경영을 통해선 빠르게 바뀌는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

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두가 참여하게 해 성과를 만들어나는 민주 경영도 중요하죠.

경영인이 알아야 하는 경영의 지혜 7가지는 △인고의 지혜△적시의 지혜△특심의 지혜△경청의 지혜△선견의 지혜△축적의 지혜△도전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들의 각각의 뜻은 다음과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한 길로 가면 결국 이뤄진다. 참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타인의 말을 들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마음은 결국 나에게도 온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리 변화를 감지해라. 계속해서 노후와 기술을 축적시켜 나가야 한다. 시도하지 않고는 변화를 맞이할 수 없다. 이를 마음에 새겨놓는다면 참된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7.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선 개인적으로 이번 달 10일에 노규성 TV 유튜브 채널을 열 예정입니다. CEO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공적인 기관인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 대상들은 △청소년△중소기업△신남방국가 등 해외 개발도상국이며 이들을 모두 포용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이들이 발전해 강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발굴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Q8. 경영인을 꿈꾸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꿈과 열정을 가진 후, 신뢰와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꿈은 자신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그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미션이나 비전을 갖는 경영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꿈을 갖춘 다음에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길에 열정을 다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와 융화를 갖추면 좋습니다. 혼자서 꿈을 이루려면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갖춘 후엔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경청을 통해서 사람들과 융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춘 경영인이 되길 바랍니다.